

여성주의 새내기 OT,

함께해요!

지금까지 공동체내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 때문에
여성들의 경험이 묻혀져왔었죠.
이제 좀 더 대안적인 관계맺음을 상상해보아요!

진솔한 자신을 표현하고 주체적인 나를 만들어가
는 새로운 만남 속에서 새내기 여자친구들을 따
뜻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내년 2월, 새내기 여자친구들의 힘찬 4년 나기를
축복하며재미있는 이야기와 공연, 강연, 언니들
만나기, 즐거운 놀이로 꾸며질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새내기 여자친구들에게, 우리 언니들의 여성주의
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멋진 언니
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여타



18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류김지영 · 김선명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총여학생회
정후보

류김지영_아이서 (사회학과 2학년)

2004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대학생연합광고동아리 <애드파워> 18기

2005년 여성주의 공동체 <미묘> 활동

연세대 Club We C.A.N. 문화기획터 <TIUM>

섹슈얼리티 영화제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촘촘한 억압과 모호한 해방에 관하여" 기획단

세계여성학대회 자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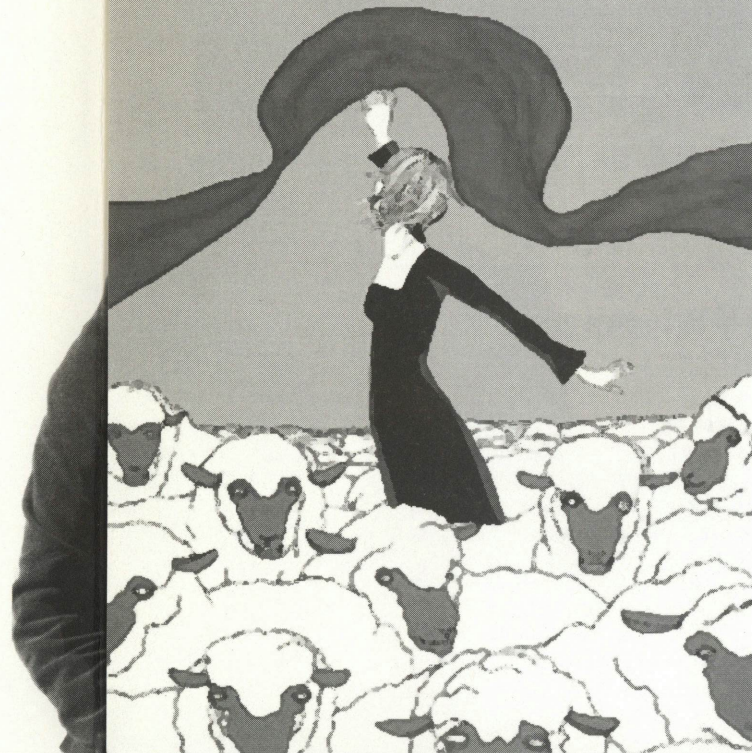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05 축제상황실 인디스트

여성제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기획단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2005 온고지시니

|아이서| 너에게 보이는 모습만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여기, 열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언어로 생동하는 여성,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축제를 꿈꾼다.
우리의 노력은 고달프고도
먼 길일지 모르나
내게 여성주의가 있는 한,
행동하는 우리가 있는 한,
그 일상은 축제이다.

내게 힘을 주는 여성주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여성주의,
그리고 여성주의에 더욱 큰 힘을 보태는
우리의 힘, 여성주의는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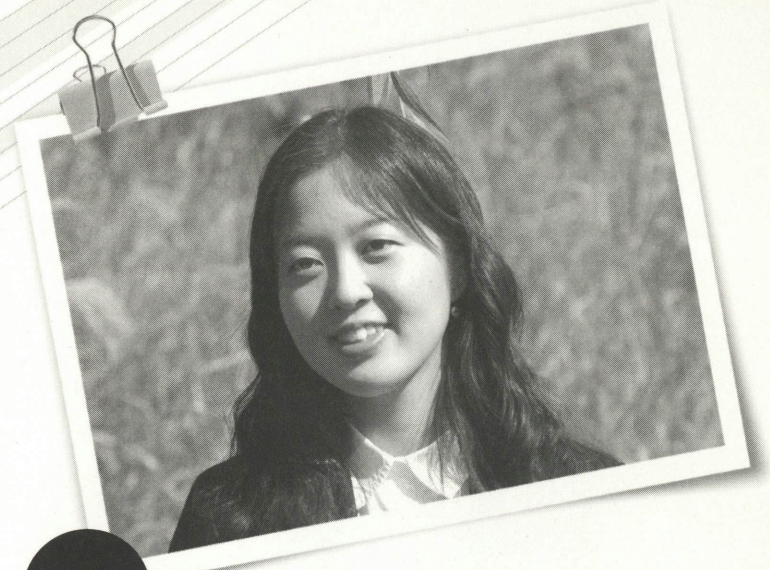
나는 여성이었다.

나는 여성이었다.

나는 여성이었다.

그들의 허끝에서 정의되는 나,
그들의 손끝에서 내 몸으로 파고드는 그들의 질서.
그 속에서 나는 침묵하지 않는 여성이고 싶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에겐 나의 언어와 나의 욕망과 나의 친구들이 있기에,
고통을 박차고 나올 힘 역시 우리 안에,
우리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음을 알기에.



총여학생회
부후보

김선명수_ 아무도 (사회학과 2학년)

2004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중앙 사진 동아리 <연영회> 활동
2005년 사회학과 여성학 학회 <뽕수다> 활동
제8회 여성제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기획단
정치경제학 연구회 <목하회> 회장
(준) 이주여성노학연대 팀 <구공탄> 활동

| 아무도 | 나를 규정하는 박제된 시선과 틀을 거부한다